

무안농협 '2014년 관리조합' 에서 '2015년 경영평가 1등급' 달성



무안농협은 지난 2015년 3월 23일 5167명의 조합원과 함께 '통합 제6대 무안농협'이 출범했다. 당시 무안농협은 농협중앙회 '관리조합'으로 등록된 상태로 경영에 어려움이 처했으나, 투명한 경영과 더 발전된 농협의 민주화와 농민을 위한 농협을 통해 '건전 농협'으로 도약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4년 56억 적자 '관리조합'
무안농협은 2014년 56억원의 적자를 내고 중앙회로부터 출자금 20억원 증대, 수탁판매 50% 전환, 대출금 연체비율 4.5% 미만 달성, 경비절감 20% 권고사항 실천 일환으로 분기별로 5억원씩 출자 증자를 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등에 짊어졌으나, 조합 경영정상화를 통해 중앙회 '관리조합'을 조기 벗어나는 기업을 토해는 실적을 거뒀다.

◆2015년 통합경영평가 1등급 달성
무안농협은 2015년 12월 '혁신과 변화'를 통해 2014년도 종합경영평가 4등급이었다. 2015년도에는 1등급을 달성, '관리조합'에서 벗어나는 혁신을 이뤘다.

◆양파 기계화 실현
무안농협은 일손 부족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양파 육묘 기계화 이양을 도입·시행했다. 조합원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2015년에 발에 양파 기계화 이양을 실시하며 기계화를 확산시켰다.
특히, 양파이양기계 구입 및 운영 비용 조달을 위해 농협중앙회 자금 지원을 신청하여 기계화 운용비를 지원 받기도 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무안농협은 2017년 4월 현경지점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농번기

2014년 56억 적자로 '관리조합' 등록
2015년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평가 1등급' 달성
재무구조 개선으로 건전결산 성과 달성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소 · 양파 이양 기계화
지속적 위험요소 관리로 '건전 농협' 달성
2018년 출자금 111억 달성...당기순이익 10억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사 시기를 놓치는 조합원을 위해 처음으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실시했다.

◆교육지원사업
무안농협은 조합원 실의 증진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농촌건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개척 및 가격안정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2015년도에 5억8천9백만원, 2016년도에 6억1백만원, 2017년도에 7억9천7백만원, 2018년도에 9억2천8백만원을 지원했다.

◆판매사업
무안농협 판매사업 실적은 2015년도 372억7천5백만원을 달성했으며, 2016년도 282억2천7백만원, 2017년도 342억1천9백만원, 2018년도 237억7천8백만원을 달성했다. 2018년도 감소는 전반적 농산물가격 하락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남해안 마늘동구 교환공급
무안농협은 매년 200톤 규모의 남해안 마늘동구 교환공급을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량종구인 생장점마늘로 103톤을 농가에 대해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지역 소요 동구마늘 전량공급을 목표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거점양곡센터 육성 대상 선정
무안농협은 무안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농협양곡주의 거점양곡센터 육성 대상으로 선정 및 전환 완료하여 농협 경영에 부담 없이 조합원이 생산한 원료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구조 개선
무안농협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기자본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015년도 출자모집 20억1천5백만원,



감소분 9억4천6백만원 차감 후 순증가액 10억6천9백만원을 증대, 당기순이익 12억5천만원을 실현, 사업준비금으로 2억5천1백만원을 적립했다.

2016년도 출자모집 10억1천1백만원, 감소분 3억8천9백만원 차감 후 순증가액 6억2천3백만원을 증대, 당기순이익 9억6백만원을 실현, 사업준비금으로 2억3천4백만원을 적립했다.

2017년도 출자모집 13억2천5백만원, 감소분 2억7천3백만원 차감 후 출자금 순증가액 10억5천2백만원을 증대, 조합원 출자금 100억원을 달성했으며, 당기순이익 10억3백만원을 실현, 사업준비금으로 2억7천만원을 적립하고 3억9천8백만원을 2018년으로 이월했다.

2018년도 조합원 출자모집 14억2천5백만원, 감소분 2억9천8백만원 차감 후

출자금 순증가액 11억2천7백만원을 증대, 조합원 출자금 111억원을 달성했으며, 당기순이익 10억2천8백만원을 실현, 각종 적립금 적립 후 조합원 출자배당 3.91%, 이용고배당 1억3천만원, 우선출자배당 4.10%를 배당할 예정이며, 사업준비금으로 2억9천만원을 적립하고, 4억원의 다가오는 정기총회를 갖고 2019년으로 이월할 예정이다.

◆위험요소 관리
무안농협은 위험요소 관리를 위해 적절한 위험요소 관리를 통한 새로운 이익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및 협의회를 정례화 하여 시장상황이나 경영현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하고 있다. /이민행대표기자